

空想

空想—

내마음의 塔

나는 말없이 이탑을 쌓고있다

名譽와 虛榮의 天空에다

문허질줄도 몰르고

한층두층 높이 싸스는다

×

無限한 나의空想——

그것은 내마음의 바다

나는 두팔을 펼쳐서

나의 바다에서

自由로히 헤엄친다

黃金 知慾의 水平線을向하여。

『崇實活泉』 (1935. 10)에서

공상

공상—

내 마음의 탑

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.

명예와 허영의 천공에다

무너질 줄도 모르고

한 층 두 층 높이 쌓는다.

×

무한한 나의 공상——

그것은 내 마음의 바다

나는 두 팔을 펼쳐서

나의 바다에서

자유로이 헤엄친다.

황금 지옥의 수평선을 향하여.

1935. 10.